

휴식같은 선율 당신을 찾아 갑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올해 처음으로 기획공연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을 선보인다. 또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와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기획공연을 준비했다.

▲2018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올해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는 대중가요, 팝,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첫 시작은 '보첼로앙상블과 함께하는 20 Cellos'(3월21일)의 무대다. 해외 유학파 솔리스트 6인이 '보첼로 앙상블'을 중심으로 '첼로오케스트라'를 선보인다. 4월은 '다스토리'(4월25일)로 국내 카운터테너 중 최고 기량을 가진 연주자로 평가받는 루이스 초이의 독특한 음색으로 유명한 오페라리아와 파페라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다.

이어 재즈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별들의 도시'(5월30일), 현대판 시나위를 선보이는 '앙상블 시나위, 시간의 공간(6월27일)', '파페라와 재즈를 만났을 때(7월25일)', '라 맨타나, 한여름밤의 탱고'(8월29일)이 이어진다. 또 메이트리의 '너의 목소리가 보여'(9월29일), 1980~90년대 감성을 대표하는 포크락그룹 여행스케치의 '가을소풍'(10월28일) 공연도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 공연은 빅밴드 '소울트레

인'(11월28일)이 준비했다. 관람료 일반 2만 원, 청소년 1만 원.

▲2018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올해 청소년 음악회는 단순히 보고 듣는 공연이 아니라 연주자와 해설자, 그리고 관객인 청소년과 함께 소통하며 예술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체험형 공연으로 준비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3월 첫 무대는 '바흐, 레브란트를 만나다'(3월22일)를 주제로 열린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 바흐와 미술가 레브란트를 비교함으로써 그들이 바라본 예술의 초점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렉처콘서트다. 이어 피아졸라와 탱고의 첫 만남부터 그만의 새로운 탱고음악 '누에보 탱고'가 탄생하기까지를 담은 '해피 버스데이 피아졸라'(4월19일) 무대다.

그밖에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삶을 더듬어보는 '클래식 큐레이터, 라스트 모차르트'(6월21일), 아시아 여성 최초의 퀸 엘리자베스 롱쿠르 성악 우승자 소프라노 흥해란의 '디바 인 뉴욕'(7월19일)이 무대를 채운다. 이어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다'(9월20일), '오페라가 듣리는 이탈리아 여행'(10월18일) 로베르트 슈만과 그의 연인인 클라라 슈만에 얽힌 이야기와 음악을 '해피버스데이, 슈만'(11월22일)이 대가중이다. 관람료 일반 2만 원, 청소년 무료.

▲11시 클래식 산책
'11시 클래식 산책'은 클래식 가이드 김이곤이 인문학적 해설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흥미로운 클래식 세계로 안내한다. 오전 11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3월 첫 무대는 13일 '봄에 듣는 상송'을 주제로 열린다. 프랑스 상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대표곡을 들으며 마치 프랑스 여행을 가 있는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됐다.

4월에는 '8음 8색 창조콘서트'(4월10일)가 열린다. 역사 속 예술가들 16인의 미술과 음악을 소재로 쉬운 해설과 감동적인 연주를 통해 시대의 핵심적 가치인 '창조'를 음악회를 통해 만나본다. 이어 5월에는 사랑의 계절을 따라 설레는 만남, 뜨거운 사랑, 서글픈 이별에 이르는 인생의 대서사를 감성 어린 음악으로 들려주는 '詩, 음악으로 말한다'(5월15일)다.

다음으로, 기타리스트 안형수와 플루티스트 김민혜가 선보이는 '클래식 기타로 듣는 동요'(6월12일) 공연이 펼쳐지며 세기의 로맨스 '슈만과 클라라, 브람스의 완전한 사랑'(7월17일) 무대가 준비됐다. 그밖에 클래식과 와인이 함께하는 '가을의 와인 콘서트'(9월11일), 국내 정상급성악가 4인으로 구성된 '로맨스그레이'(10월16일)가 공연을 선보인다. 마지막 공연은 '반고흐 음악회'(11월13일)다. 관람료 1만 원, 청소년 5000원. 문의 062-613-8235. /전은재기자 ej6621@



여행스케치



메이트리

광주문화예술회관 내달부터 시리즈공연
가요·팝·재즈·국악 '작은음악회'
해설로 예술 교감 '청소년음악회'
오전 11시에 만나는 '클래식 산책'

'명불허전' 국내 판화 김넷과, 4월까지 유명작가 작품전



이대원 작 '농원'

국내 유명 작가의 판화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복합문화공간 '김넷과'는 2018년 첫 기획전으로 '김넷과 소장 유명 작가 작품전'을 오는 4월 말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을 역임한 이대원 작가를 비롯해 김기창, 김창열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동판화와 석판화 등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이대원 화백의 작품들은 나무와 함께 식물의 잎사귀등을 묘사할 때 사용된 과감한 색채와 단순화된 형태에서 거침없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거칠고 강한 선들이 화면에 포착된

'농원' 연작 등 1990년대 제작된 작품이 전시된다. 이 화백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 홍익대학교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다.

은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으로는 화려하고 부드러운 채색이 가미된 산수화 '청산' 연작 시리즈를 비롯해 '바보화조', '아악의 리듬' 등 1990년대 집중돼 나타나는 채색 석판화를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물방울 작가'로 불리는 김창열 화백의 작품과 함께 여류화가로 33회의 개인전을 열며 수채화 공모전 대상, 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한 박유미 작가의 판화 작품도 전시된다. 남관 화백의 1988년 서울올림픽 기념 판화도 만날 수 있다.

관람시간 오전 11시~오후 6시(일요일 오후 3시)까지며 저렴한 가격에 판화작품 구입이 가능하다. 문의 062-229-33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봄' 깨우는 클래식 앙상블 베를리나 28일 금호아트홀

앙상블 베를리나의 연주회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독일 베를린 음대에서 함께 수학한 인연으로 결성된 '앙상블 베를리나'는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아르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씨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요시아키 시바타, 피아니스트 마미 미야케, 리에 나가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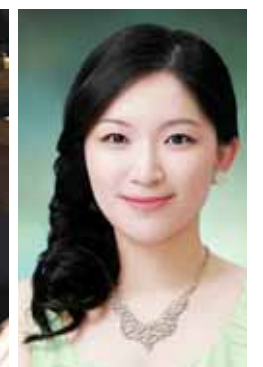
요시아키 시바타



김도연



마미 미야케



리에 나가야스

감독으로 활동중이다.

마미 미야케와 리에 나가야스는 일본 동경 국립예술대학교와 일본 도호 음악원을 각각 졸업하고 현재 일본 센조쿠-가쿠엔 음악대학의 강사로 활동 중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루이 슈퍼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듀엣 op.67, no.1', 멘델스존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악흥의 순간, Op.11' 등이다. 전석 2만 원, 학생 50% 할인. 문의 010-4301-1929.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